

# 디에스피원, 美 전기차 충전기 1위 기업과 합작법인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 공략

블링크, 미국 시장 표준 선점 기업  
충전스테이션사업 영토 본격 확장  
클라우드·충전시스템 시너지 기대



블링크 차장의 마이클 파카스(왼쪽) 이사회 의장과 디에스피원 홍동호 대표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전문기업 디에스피원이 미국 전기차(EV)용 충전기 시장점유율 1위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올해부터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디에스피원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디에스피원은 4일 미국의 블링크 차징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피원이 지분의 90%, 블링크가 10%를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디에스피원의 EV 스테이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디에스피원이 제조한 EV용 전기충전기와 함께 블링크의 충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블링크가 보유한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기술은 디에스피원이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디에스피원은 EV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에스피원은 또 협력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향후 글로벌 시장의 EV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동호 디에스피원 대표는 “블링크는 미국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한 EV 충전기와 네트워크서비스 선두주자”라며 “블링크의 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디에스피원의 충전시스템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블링크는 나스닥 상장사로 미국내 EV 충전 장비 및 서비스 분야 1위 기업이다. 미국 전역에 1만4000개 이상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블링크는 충전기는 물론 충전 스테이션의 모든 데이터를 운영, 관리, 추적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블링크 네트워크(Blink Network)’를 공급하고 있다.

블링크는 최근 아마존의 자회사인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체인 홀푸드와 제휴해 홀푸드 매장에 충전소를 공급하는 등 미국내 공항, 대학교, 쇼핑몰, 주차장, 학교 등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늘리고 있다.

양사는 이번 JV 계약에 앞서 지난달 7일 의향서(LOI)를 교환했으며 그 동안 상대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사업을 준비해왔다.

합작법인을 통해 블링크는 디에스피원의 제조 지원을 받아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표준화된 EV 충전기와 충전 서비스를 도입하고, 디에스피원은 블링크의 충전 스테이션 및 EV 충전기 운용 노하우와 서비스 마케팅을 지원받아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용 이동수단(PM)의 에너지 충전 시스템 표준 모델 개발을 위



LG하우시스는 4일 울산 울주군 LG하우시스 울산공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썬그린누리’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영현 고용촉진이사, LG하우시스 울산공장 주재임원 우명수 상무, LG하우시스 장흥철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 LG하우시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누리’ 출범

LG하우시스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LG하우시스는 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LG하우시스 울산공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썬그린누리’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하우시스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최종 설립 인증을 받아 이날 출

범한 그린누리는 총 51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이 가운데 13명은 중증장애인이다. 그린누리는 앞으로 LG하우시스의 울산공장과 옥산공장에서 실내 환경미화, 카페 및 매점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겐 폭넓은 장애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리아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온라인 협업’ 전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

코리아센터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온라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기업 지원 ▲장애인 가족 및 예비창업자 육성 ▲온라인 창업을 통한 해외(중국·일본·미국 등) 판로개척 ▲쇼핑몰 매출 향상 현장 클리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코리아센터 김영철 부사장(왼쪽)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김수환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센터

## 식물성 유산균으로 위·장 건강을 동시에

CJ제일제당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

CJ제일제당은 장 건강과 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물성 유산균 제품인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는 국내 기술로 개발돼 특허 받은 식물성 유산균 ‘CJLP243’과 위 건강 기능성이 있는 ‘감초추출물’ 성분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장 건강은 물론이고,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인 ‘CJLP243’은 CJ제일제당의 발효식품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치에서 추출해, 생존력과 부착력이 강한 식물성 유산균이다. 식약처로부터 ‘장 속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인증 받은 소재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의 또 다른 중요 성분인 ‘감초추출물’은 복부팽만감, 역류, 속쓰림 등 기능성 소화장애 10



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확인된 식약처 인증 소재다. 감초추출물 인체시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 보균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캡슐 하나로 위와 장의 건강 밸런스를 한번에 챙길 수 있는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를 앞세워 비싼 일상 속 스트레스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재한 CJ제일제당 건강마케팅 담당자는 “40세 이상 한국인 60%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로 조사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온 가족이 365일 위 건강과 장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BYO 유산균 위건강 케어’ 제품이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휴가지 추억, 흉터로 기억하지 마세요

휴가철 흉터관리 팁

환부 청결 유지·균 노출 방지 중요  
습윤밴드·흉터치료제 이용해 관리

비타민C 함유된 실리콘 겔 성분  
착색 억제하고 임신부·아동 무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레저 액티비티를 즐기고자 계획했다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필수다.

한 취업전문 업체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5.1%가 휴가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진행한 올해 휴가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괌, 세부, 오키나와 등 레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인기 여행지로 꼽혔다.

액티비티 등 평소보다 신체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안전사고 역시 빈번히 일어난다. 큰 사고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기는 작은 사고에도 평소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흉터예방은 관리부터 철저히  
휴가지에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은 응급 처치, 아무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리로 인해 흉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응급약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휴가지에서는 상처가 생겼을 때 환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균 노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부를 씻을 때에는 생리식염수 등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흐르는 물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깨끗이 씻어낸 환부가 건조되면 습윤밴드를 붙여 습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면 흉터치료제로 흉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어른과 달리 피부가 연약한 어린 자녀가 다쳤을 경우엔 올바른 흉터 관리법 숙지는 물론 흉터치료제 선택 또한 신중해야 한다.

흉터치료제를 고를 때에는 실리콘 겔 성분의 흉터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리콘 겔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어린 아이는 물론 임신부 및 수유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신 실리콘 성분인 CPX(씨클로펜타실록산)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줄여 흉터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증식을 억제한다. 꾸준히 사용할 경우 흉

터를 평평하고 부드럽게 개선하는 1차적인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

‘내약사용설명서’의 저자인 이지현 약사는 “성장기 아이들은 피부 재생능력이 뛰어나 어른에 비해 상처가 빨리 아무는 반면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흉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딱지가 떨어진 직후부터, 수술을 했을 경우엔 실밥 제거 후 7~10일 이후부터 흉터치료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색흉터 남기지 않으려면  
상처가 아물고 난 직후부터 성숙기(6개월에서 길게는 1년)를 지나지 않은 예민한 상태의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쉽게 착색될 수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가 상처로 민감해진 피부에 과다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아문 상처 주위가 거뭇하게 변하게 되는 착색 흉터까지 관리하려면 비타민 C가 함유된 실리콘 겔 성분의 흉터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C 성분은 피부색을 변하게 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없게 해 준다.

/김민서 기자